

최종보고서 제출서

“소상공인 거시환경 분석(SWOT 분석)” 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첨 1. 최종보고서 5부
2. 최종보고서 CD 1장. 끝.

2016 년 8 월 26 일

주관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인)

과업책임자 : 문 선 응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 출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상공인 거시환경 분석(SWOT 분석)”에 관한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8. 26.

주관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업책임자 : 문 선 응

요 약 문

소상공인 거시환경분석 (SWOT 분석)

거시환경 분석자료 및 분석항목

- 본 연구는 PEST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거시환경분석을 실시한 바, PEST 분석은 정치/제도적(Political) 환경, 경제적(Economical) 환경, 사회/문화적(Social) 환경,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임
- 거시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는 e-나라지표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이용한 바, 분석항목은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주요 지표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PEST 항목으로 재분류 한 후,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로 정리함

○ 경제 부문 3개 영역별 주요 항목과 분석 결과

- 국가경제는 국내 총생산, 투자, 무역의존도, 물가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산업경제는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3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가계경제는 소득, 소비지출 2개 항목으로 구성
- 경제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요약하면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경제	국가	국내 총생산 투자 무역의존도	정부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해외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의 활성화가 가능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로 가계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국외 지급요소소득의 증가율이 국외수취요소소득보다 낮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소상공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저성장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소상공인시장경동향	3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음으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청년 실업의 증가와 장년층의 고용 증가의 의미는 우수한 장년 인력이 소상공인의 사업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폐업하는 소상공인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장년층의 취업률 증가의 의미는 소상공인의 무분별한 창업증가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가계	소득 소비지출 소비자심리지수	없음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소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소비심리 악화로 향후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됨

사회/문화 부문 4개 영역별 주요 항목과 분석 결과

- 인구통계는 인구규모와 인구변화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불평등은 고용, 임금 및 지니계수 3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교육은 교육효과 1개 항목, 관광은 외래관광 1개 항목으로 구성됨
- 사회/문화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요약하면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사회/문화	인구통계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통계에서는 국내 거주인구만 분석하였으나, 외국관광객의 증가로 수요 증가의 가능성은 있음 ¹⁾	인구성장률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비 감소 및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쟁 심화
	불평등	고용 임금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의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소상공인이 정규기업화 되어 가고 있음	소상공인의 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용역,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낮아서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상화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에 어려움
	교육	교육효과	대학졸업자취업률의 증가는 일정기간 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상공인에 취업한 후 임금격차로 인하여 이직가능성이 높음
	관광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외래 관광수입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름	대형 면세점에 비해 열악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소외 가능성

○ 기술 부문의 2개 영역별 주요 항목과 분석 결과

- IT 발전은 IT산업 생산비율, 인터넷이용률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투자비율 1개 항목으로 구성됨
- 기술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요약하면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기술	IT 발전	IT산업 생산비율 인터넷이용률	IT융합서비스 및 기기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인터넷이용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기회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전통적인 IT기기의 생산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소상공인의 역할변화가 필요함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투자비율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으로 인하여 혁신활동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없음

○ 정치/제도 부문의 2개 영역별 주요 항목과 분석 결과

1) 관광객의 변화추이는 거시환경 분석에서 현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가 필요함

- 정부지출 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뢰와투명성은 기관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2개 항목으로 구성됨
- 정치/제도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요약하면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정치/ 제도	재정	정부지출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지출 증가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의 감소의미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신뢰와투 명성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의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공정경쟁과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관신뢰도의 하락으로 정책수립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

○ SWOT 분석 결과 요약

- 이상의 PES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소상공인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그리고 소상공인 특성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기회(O) : Opportunity

- (무역의존도 증가) 해외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가능함
- (우수인력 고용 확대) 청년실업 증가는 우수한 청년인력이 소상공인으로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불평등 요소 감소) 자영업자,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로 소상공인이 정규 기업화 되고 있음
- (IT 발전) IT산업의 발전 및 인터넷이용률의 증가는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증가, O2O 서비스 확대, 새로운 서비스업태 형성 가능성이 높음
- (삶의 질 향상) 정부의 재정지출이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외래 관광객 증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과 관광수입 증가는 내수경기 악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소상공인의 적극적 공동 노력이 필요함

위기(T) : Threat

- (경제성장 둔화)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내수침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국내외적 정치경제 환경 악화로 소상공인의 매출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체감경기) 연평균 가구소득의 증가율은 1.69%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1%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소비자의 소비심리 저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실적 등 체감경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임금격차 심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파견/용역,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격차 확대에 인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 비중 상승 가능성이 높음
- (인구성장률 감소)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소비감소 및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종의 과당경쟁 우려가 있음

○ 강점(S) : Strength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86%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38%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 업종 절대적 역할 수행)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소상공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업종분야 합리적 재편) 소상공인은 산업구조와 노사 관계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환경변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며 사회의 수요변화에 따라 업종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 재편할 수 있음
- (소공인의 역할 증대) 소상공인 대비 소공인이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측면에서 2007년 대비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약점(W) : Weakness

- (지역별 편중 심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 모두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수도권과 대도시 등 지역별로 편중된 소상공인 분포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적, 물적 영세성)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분류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인력과 자금 등 소상공인의 상대적 열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 (소상인 사업 환경 악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사업체수 기준 85.7%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77.1%로 역할이 미미함

< SWOT 분석 결과와 정책추진 방향 >

거시환경분석에 기초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산업특성에 기초한 강점과 약점	기회(O)	위기(T)
	○ (무역의존도 증가) ○ (우수인력 고용 확대) ○ (불평등 요소 감소) ○ (IT발전 및 삶의질 향상) ○ (외래 관광객 증가)	○ (경제성장 둔화) ○ (내수 및 체감경기 악화) ○ (임금격차 심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강점(S)	SO전략(공격전략)	ST전략(위협최소화)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 (특정 업종 절대적 역할 수행) ○ (업종분야 합리적 재편 가능) ○ (소공인의 역할 증대)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강세 분야의 현대화 ○ 제조업 등 우수 인력 확보 노력 강화 ○ 사회수요와 환경변화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업종재편 및 특성화	○ 경기침체에 대응한 비용절감 노력 및 특성화를 통한 고객 유치 ○ 임금 상승에 대비한 비용절감 노력 및 생산성 향상 ○ 성장률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 수립
약점(W)	WO전략(약점보완)	WT전략(생존전략)
○ (지역별 편중 심화) ○ (인적, 물적 영세성) ○ (소상인 사업환경 악화)	○ 지역별, 도농간 편중 해소를 위한 SOC 등 기업환경 개선 ○ 인력 재교육, 금융지원 등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골목형시장 개선사업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 전략 마련 및 경쟁력 확보 ○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구조 개편 노력 강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 창업 유도 및 과당경쟁 방지

거시환경 분석

[SWOT 분석]

1. 거시환경 분석방법과 연구범위-----	1
2. 거시 PEST 분석에 기초한 기회와 위기 요인 도출 ----	3
3. 산업특성에 기초한 소상공인 강점과 약점 도출-----	30
4. 소상공인 SWOT 분석결과와 추진전략-----	38

2016. 8. 26.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상공인 거시환경분석 (SWOT 분석)

1. 거시환경 분석방법과 연구범위

소상공인의 정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구분되는 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거시환경의 변화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거시환경 중에 어떠한 요인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거시환경 변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PEST 분석과 STEEP 분석 방법이다. PEST 분석은 정치/제도적(Political) 환경, 경제적(Economical) 환경, 사회/문화적(Social) 환경,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TEEP 분석은 앞의 4가지 요소에 생태학적(Ecological) 환경을 추가하였음²⁾
-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및 환경적 요소는 후행적인 요소에 가까우며,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PEST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거시환경 분석자료 및 분석항목

- 거시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을 포함하여 국가관련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정부차원에서 한 곳에 정리한 e-나라지표 사이트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수집함³⁾
- 분석항목은 e-나라지표에 나온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주요 지표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PEST 항목으로 재분류 한 후,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로 정리함

2) 최재섭(2012), “한·미 FTA 체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13(1), pp. 129-144.

3) e-나라지표(www.index.go.kr). 자료의 분석주기 등으로 인하여 자료별 시계열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분석 주요 영역 및 세부 측정지표 >

PEST 분류	주요 영역	측정 항목	세부측정지표	소상공인 선행요인	소상공인 후행결과
경제	국가	국내총생산	1인당국내총생산		○
		투자	투자율	○	
		대외거래	무역의존도	○	○
		물가	물가상승율	○	
	산업	산업구조	산업구성		○
		산업구조	서비스산업구성		○
		생산성	노동생산성	○	○
		고용	고용률	○	○
		고용	고용률(성별)	○	○
		고용	고용률(나이별)	○	
		고용	실업률(구직기간4주기준)	○	
		경기동향	내수경기동향	○	
	가계	소비동향	소비자심리지수	○	
		소득	개인소득	○	○
		소득	가구소득	○	○
		소비지출	소비지출	○	
		소비지출	소비지출구성	○	
사회/문화	교육	교육효과	대학졸업자취업율	○	
	불평등	고용	비임금근로자비율	○	○
		고용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
		임금	임금격차	○	○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인구통계	인구규모	총인구	○	
		인구규모	시도별인구	○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	
	관광	외래관광객	외래관광객과 관광수입	○	
기술	IT 발전	산업구조	IT산업생산비율		○
		미디어	인터넷이용률	○	
	연구개발활동	기술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	○	
정치/제도	재정	재정	정부지출비율	○	
		재정	정부지출구성	○	
	투명성	신뢰와투명성	기관신뢰도	○	
		신뢰와투명성	부패인식지수	○	

2. 거시 PEST 분석에 기초한 기회와 위기 요인 도출

경제 부문의 주요 항목

- 경제 부문은 3개의 주요 영역인 국가, 산업, 가계경제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경제는 국내 총생산, 투자, 무역의존도, 물가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산업경제는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3개로 항목으로 구성됨
- 가계경제는 소득, 소비지출 2개로 항목으로 구성됨

2.1 경제(Economic) 부문

2.1.1 국가경제

○ 국내 총생산

- 국내 총생산은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고자 함

<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국내총생산 (만원, 명목)	1,997.1	2,146.7	2,256.4	2,341.7	2,560.8	2,677.2	2,754.7	2,846.4	2,947.2	3,079.2
1인당 국내총생산 (만원, 실질)	2,249.0	2,360.8	2,410.2	2,415.8	2,560.8	2,635.4	2,683.7	2,749.6	2,829.9	2,892.8
경제성장률 (%)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 명목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6년 1,997.1만원에서 2015년 3,079.2만원으로 연평균성장률(CAGR) 4.93%를 기록하였음
- 실질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10년 시장가격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2006년 2,249.0만원에서 2015년 2,892.8만원으로 연평균성장률은 2.84%를 기록함
- 경제성장률은 2006년 5.2%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2.6%로 상당히

. 연평균성장률은 -7.41%로 역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는 3%이하를 형성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소상공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투자

- 총고정투자와 총고정투자율을 살펴볼 수 있다. 총고정투자율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총고정투자율이 높은 경우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및 유형별 고정투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고정투자(조원)		350.3	367.8	364.7	365.8	385.9	389.1	387.2	400	413.5	429.4
유 형 별 고 정 투 자 (조 원)	건설투자	203.7	206.8	201.2	208.2	200.6	193.8	186.1	196.3	198.5	206.2
	설비투자	98.7	108.2	108	99.7	121.6	127.3	127.4	126.4	134	141.1
	지식재산생 산물투자	49.9	54.2	56.7	59	63.7	68.1	74	77.2	81.3	82.6
총고정투자율(%)		32.2	32.1	30.9	30.8	30.5	29.7	28.9	29	29	29.3

- 총고정투자는 2006년 350.3조원에서 2015년 429.4조원 연평균성장률이 2.29%를 기록하였음
- 총고정투자율은 총고정투자액을 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연기준으로 30%내외를 형성하고 있음
- 총고정투자의 분야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건설투자가 전체의 48% 정도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설비투자 33%,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과거 무형고정자산투자의 명칭이 변경된 것임
- 정부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부문이 건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무역의존도

- 수출입 현황과 국외수취 및 국외지급 요소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비율 살펴보고자 함

< , 요소소득 및 GNI 대비 수출입비율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액(조원)	359.0	408.8	551.8	547.6	625.3	742.9	776.1	770.1	747.1	715.4
수입액(조원)	351.5	397.0	551.9	493.7	585.0	723.0	737.6	698.9	669.1	606.9
국외수취요소소득(조원)	15.5	20.1	25.1	21.2	27.8	31.9	35.3	34.2	29.3	32.4
국외지급요소소득(조원)	19.1	23.2	25.2	23.9	26.5	24.0	21.1	24.0	24.6	25.2
GNI 대비 수출입비율(%)	77.4	81.6	104.5	94.6	99.8	113.5	112.8	106.1	98.6	88.1

- 수출과 수입이 크면 생산과 판매에서 외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액과 국외지급 요소소득이 크면 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산업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함
-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5.56%, 7.96%를 기록하고 있다. 둘 다 증가하고 있어 외국과의 대외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이 더 증가하고 있음
- 국외요소소득은 자국 자본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와 외국 자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생산에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국외수취요소소득은 연평균증가율이 8.54%인 반면, 국외지급요소소득은 3.13%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GNI대비 수출입비율은 2006년 77.4%, 2015년 88.1%로 연평균증가율 1.45%이다.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무역의존도 측면에서 해외와 활발히 진행되어 국내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국외수취요소소득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국내 소상공인의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활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물가

- 물가는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고자 함

< 및 상승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총지수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107.7	109.0	109.8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총소비지출 중에서 구입비중이 큰 약 48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들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 소비자물가총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했다는 의미는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소비자물가총지수의 연평균증가률이 2.48%를 형성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9.0, 109.8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소비자물가총지수는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0.7%로 거의 정체상태임
- 최근 소비자물가총지수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증가하지 않다는 것은 가계소비에 대한 부담이 적음을 의미하여, 소상공인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정체 또는 저성장의 가능성도 있음

2.1.2 산업경제

○ 산업구조

- 1차, 2차, 3차산업의 구성과, 산업집중도를 살펴보고자 함
- 산업구조는 국내총생산에서 1차, 2차, 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차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이 포함되며, 2차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등이 포함된다. 3차산업은 1차산업과 2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포함됨
- 산업구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임
- 산업집중도는 품목연계에 따라 구분된 세세분류기준 CR3 상의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평균이다. 2013년 조사에서의 산업집중도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품목연계 세세분류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종전 발표자료 통계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 산업집중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구성 (%)	1차산업	3	2.7	2.5	2.6	2.5	2.5	2.5	2.3	2.3
	2차산업	36.9	37	36.3	36.7	38.3	38.4	38.1	38.4	38.2
	3차산업	60.2	60.3	61.2	60.7	59.3	59.1	59.5	59.3	59.4
산업집중도					44	43.9	43.7	44.5	44.5	

- 1차산업은 2006년 3%에서 2014년 2.3%로 연평균 3.72% 감소하였다. 반면 2차산업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반면, 3차산업은 2006년 60.2%에서 2014년 59.4%로 연평균 0.19% 감소함
- 산업집중도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자료를 살펴볼 때, 44% 내외로 큰 변화가 없음
-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산업은 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해당된다. 즉, 2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2006년 대비 2014년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

알 수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은 3차산업의 산업구성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산업은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성이 선진국과 다름을 알 수 있음⁴⁾

○ 생산성

- 생산성 항목에서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기업규모별 영업이익율을 살펴보고자 함
-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노동자들이 단위노동시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의 평균 시장가치 즉,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 총노동시간 대신 총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당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인당노동생산성은 국가비교가 힘들어 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많이 사용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생산성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에 다른 생산성 증가분을 뺀 생산성의 증가율임

< 지수, 요소생산성 및 영업이익율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⁵⁾
시간당 노동생산성 (달러, 2010년 PPP기준)		23.8	25.3	26.5	26.9	28.9	30.8	29.9	31.5	31.2	
인당 노동생산성지수		96.3	99.3	98.3	96.0	100.0	99.5	96.9	97.0	95.9	95.9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94.0	98.7	94.7	95.2	100.0	100.2	97.6	98.7	98.6	98.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3.0	4.4	3.2	0.4	5.6	4.3	-2.6	3.2	0.7	
영업이익율 (%)	대기업		6.8	6.6	6.4	7.7	6.1	5.4	5.6	4.3	
	중소기업		4.4	4.8	4.5	4.5	4.2	4.3	4.4	4.1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

4) World Bank(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5) 2015년 자료는 추정치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이유는 GDP 증가폭에 비해서 노동시간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4년 기준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 약 60달러 선보다 31.2달러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에 비해서 인당 노동생산성지수가 과거 대비 감소한 이유는 노동에 투입되는 인구는 증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6년 3.0%에서 2014년 0.7%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생산성의 증가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 영업이익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7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율 6.8%에서 2014년 4.3%로 연평균 4.65%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2007년 4.4%에서 2014년 4.1%로 큰 변화 없이 소폭 감소함
- 인당 노동생산성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상공인의 많이 증가하였지만, 생산성이 좋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대기업 중심의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

- 고용 항목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고자 함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다.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를 포함함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생산성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에 다른 생산성 증가분을 뺀 생산성의 증가율임

< 및 실업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고용률(%)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나이별 고용률 (%)	15-19세	6.7	6.6	5.9	5.4	6.1	6.8	7.0	6.9	7.7
	20-29세	60.2	60.0	59.1	58.2	58.2	58.5	58.1	56.8	57.4
	30-39세	73.2	72.9	72.9	71.3	72.0	72.2	72.7	73.2	73.9
	40-49세	77.7	78.3	78.4	77.7	77.8	78.4	78.3	78.4	79.1
	50-59세	68.5	69.7	70.6	70.3	70.9	71.6	72.2	73.1	74.2
	60세 이상	37.4	38.1	37.2	36.7	36.0	36.5	37.5	38.4	39.0
전체 실업률		3.5	3.2	3.2	3.6	3.7	3.4	3.2	3.1	3.5

- 고용률은 2006년 59.7%에서 2014년 60.2%로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나이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29세의 고용률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50-60세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전체 실업률은 3.5%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음
- 청년 실업은 증가하였지만, 고령대에서 생업을 위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령자 중심으로 소상공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

○ 내수경기동향

- 경기동향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상공인의 체감 및 전망이 과거 평균보다 호전된 반면,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악화됨을 의미함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동향 및 경영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표본은 소상공인 2,200개 사업체와 시장 1,000개 사업체로 구성되며, 조사항목은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료조달시점 및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과 전망으로 구성됨

< 최근 추이 >

	2015 9월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2016 4월	2016 5월	2016 6월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 체감	69.0	71.4	63.2	59.6	64.6	77.9	82.3	81.3	75.1	66.5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 전망	94.1	98.3	90.4	84.2	76.2	86.3	111.1	106.3	102.8	86.3

- 체감지수는 최근 100 이하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상공인시장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올해 들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최근 조선업과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와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 및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는 경제전반의 내수시장 축소와 더불어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조선운수업과 1차 금속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최근 추이>

		2015 9월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2016 4월	2016 5월	2016 6월
조선운수업	생산	74	77	70	79	78	70	78	82	91	85
	수주	69	71	70	77	71	68	73	81	89	86
1차 금속산업	생산	91	87	100	86	84	91	86	87	85	71
	수주	70	74	73	67	71	65	65	47	56	45

2.1.3 가계경제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심리지수(CCSI,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함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인 반면,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 최근 추이 >

	2015 9월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2016 4월	2016 5월	2016 6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105	105	102	100	98	100	102	99	99

-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2015년 9월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향후의 경기둔화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살펴보고자 함
-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개인본원소득에서 직접세 경상이전지급 금액을 뺀 후 연간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
- 월평균가구소득은 매월 집계된 가구소득 자료를 연간기준으로 재집계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가구소득은 한 가구가 취득한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됨
- 실질소득은 물가지수(2010년=100)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는 경제학적으로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향상소득가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바, 학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히 소비가 일정부분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함
- 절대소득가설: 소득이 증가하면 전체 지출 비율에서 소비 지출 비율은 감소하고 저축 비율은 증가
- 상대소득가설: 소비의 전시효과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의 소비형태에 영향을 받음
- 향상소득가설: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해 결정됨

<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및 가구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 (만원)	1,232.1	1,301.9	1,344.8	1,418.8	1,490.0	1,540.5	1,610.2	1,676.9	1,756.5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만원)	4.5	5.7	3.3	5.5	5.0	3.4	4.5	4.1	4.7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만원)	1,364.4	1,377.3	1,384.6	1,418.8	1,432.7	1,449.5	1,495.5	1,537.9	1,599.6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만원)	1.9	0.9	0.5	2.5	1	1.2	3.2	2.8	4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만원)	320	339	343	363	384	408	416	430	437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 증가율(만원)	5.3	6	1.2	5.8	5.8	6.1	2.1	3.4	1.6
월평균 실질 가구소득(만원)	354	359	353	363	369	384	387	395	398
월평균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만원)	2.7	1.2	-1.5	2.8	1.7	3.8	0.8	2.1	0.9

-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지만, 실질 개인처분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하였음
- 월평균 가구소득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명목 월평균 가구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55%였지만, 실질 가구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1.69%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은 전년대비 1% 내외임
- 가구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비지출

- 민간부분의 소비지출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의미함
- 실질소득은 물가지수(2010년=100)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1 명목 및 실질 민간소비지출 및 증가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명목 민간소비지출(만원)	1,054.0	1,124.0	1,183.0	1,210.0	1,289.0	1,364.0	1,415.0	1,449.0	1,484.0	1,524.0
1인당 명목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만원)	5.7	6.7	5.2	2.2	6.5	5.9	3.7	2.4	2.4	2.7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만원)	1,197.0	1,245.0	1,252.0	1,245.0	1,289.0	1,312.0	1,331.0	1,346.0	1,361.0	1,388.0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만원)	3.4	4.0	0.5	-0.5	3.5	1.8	1.5	1.1	1.1	2.0

- 명목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전년대비 3% 미만이다. 실질 민간소비지출 또한 2011년부터 2.0% 미만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최근에서는 민간소비지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주요 고객인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감소는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2.1.4 경제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

- 경제부문의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경제 부문의 기회와 위기 요인>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경제	국가	국내 총생산 투자 무역의존도	정부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해외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의 활성화가 가능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로 가계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국외 지급요소소득의 증가율이 국외 수취요소소득보다 낮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소상공인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저성장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	산업구조 생산 고용 소상공인시장경동향	3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음으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정년 실업의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 증가의 의미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소상공인의 사업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폐업하는 소상공인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청년층의 취업률 증가의 의미는 소상공인의 무분별한 창업증가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가계	소득 소비지출 소비자심리지수	없음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소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소비심리 악화로 향후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됨

2.2 사회/문화(Social) 부문

사회/문화 부문의 주요 항목

- 사회/문화 부문은 4개의 주요 영역인 인구통계, 불평등, 교육, 외래 관광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구통계는 인구규모와 인구변화 2개 항목으로 구성됨
- 불평등은 고용, 임금 및 지니계수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교육은 교육효과 1개 항목으로 구성됨
- 관광은 외래관광 1개 항목으로 구성됨

2.2.1 인구통계

○ 인구규모와 인구성장률

- 인구규모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성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인구이다. 인구는 국제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포함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임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6년 48,372천명에서 2016년 50,801천명으로 연평균 1.14% 증가하고 있음
-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계산된 바, 2006년 0.49%에서 2016년 0.3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은 4% 미만의 증가율로 최근 10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인구분포는 2016년 기준으로 서울/경기에 전체 인구의 49.7%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울의 인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0.2%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지역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에 신설된 세종의 21.55%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총인구 및 인구분포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소상공의 창업에 조심할 필요가 있음

< 및 인구성장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인구(천명)		48,372	48,598	48,949	49,182	49,410	49,779	50,004	50,220	50,424	50,617	50,801
지역별 분포 (천명)	서울	10,035	10,042	10,081	10,104	10,051	10,042	9,983	9,926	9,891	9,860	9,835
	부산	3,558	3,531	3,506	3,488	3,466	3,457	3,436	3,426	3,412	3,400	3,389
	대구	2,486	2,479	2,475	2,475	2,472	2,473	2,470	2,465	2,460	2,455	2,450
	인천	2,602	2,637	2,682	2,691	2,713	2,745	2,786	2,826	2,858	2,886	2,914
	광주	1,446	1,454	1,462	1,476	1,489	1,503	1,509	1,514	1,516	1,517	1,517
	대전	1,479	1,491	1,498	1,504	1,511	1,523	1,534	1,540	1,546	1,536	1,533
	울산	1,074	1,077	1,088	1,094	1,094	1,105	1,116	1,129	1,138	1,142	1,147
	세종	-	-	-	-	-	-	104	120	134	197	227
	경기	10,834	11,032	11,235	11,376	11,576	11,805	11,965	12,137	12,281	12,398	12,519
	강원	1,481	1,475	1,479	1,483	1,487	1,493	1,498	1,500	1,501	1,506	1,511
	충북	1,486	1,493	1,507	1,515	1,522	1,538	1,544	1,552	1,559	1,561	1,567
	충남	1,942	1,972	2,011	2,039	2,076	2,108	2,042	2,060	2,079	2,089	2,105
	전북	1,801	1,791	1,788	1,791	1,794	1,799	1,801	1,798	1,797	1,798	1,800
	전남	1,830	1,807	1,795	1,785	1,777	1,770	1,767	1,761	1,758	1,757	1,755
	경북	2,652	2,642	2,638	2,632	2,628	2,635	2,641	2,641	2,640	2,642	2,643
	경남	3,120	3,132	3,161	3,185	3,208	3,231	3,248	3,255	3,273	3,285	3,297
	제주	543	543	543	545	547	553	560	570	581	587	593
인구성장률(%)		0.49	0.47	0.72	0.48	0.46	0.75	0.45	0.43	0.41	0.38	0.36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 201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로서, '90년 5.1% 수준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0년에는 24.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소비둔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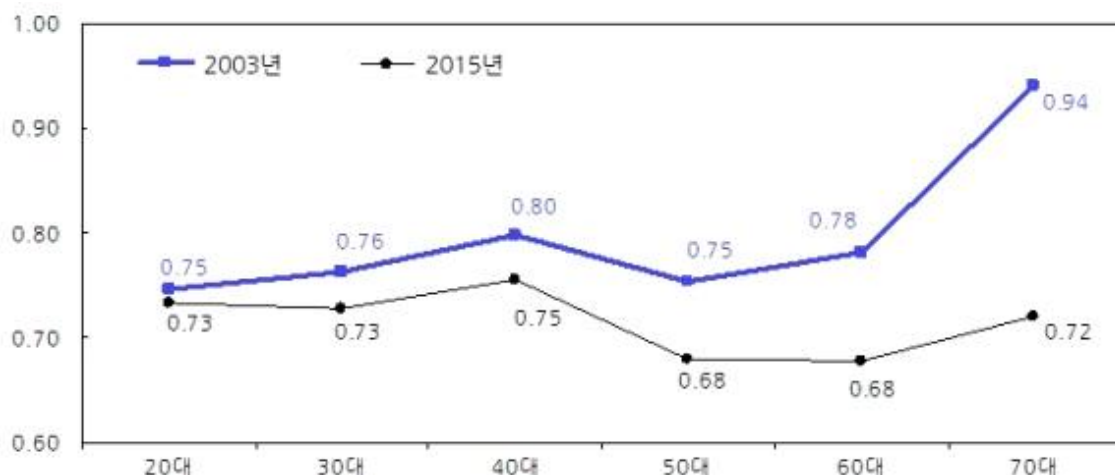
< 고령화 속도 비교 >

구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8년	115년	39년
이태리	1927년	1988년	2006년	64년	18년
미국	1942년	2015년	2036년	73년	21년
스웨덴	1887년	1972년	2014년	85년	42년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민간소비가 부진을 지속하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은 2003년 77.9%에서 2015년 71.9%까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4년 82.4를 기록함
- 특히 노후준비가 미흡한 50대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평균 하락폭 이상으로 급감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연령대별 소비성향은 50대가 7%포인트 감소(75%→68%), 60대는 10%포인트 감소(78%→68%)하였고, 70대는 무려 22%포인트(94%→72%)나 감소함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출처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KDI

- 더불어 1955~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현재 만 51~59세)의 조기은퇴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는 2015년 현재 약 728만명 규모로 이는 총 인구 대비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2040년에는 그 비중이 1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래 연령대별 고용률 추세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45~54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시점이 도달함에 따라 자칫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해 빈번한 창업과 폐업 및 소상공인간 경쟁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 특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령층의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바, 은퇴 이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고용률 추세 >

연령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5~54	72.6	73.1	74.0	74.5	74.0	74.4	75.0	75.3	75.8
55~64	60.4	60.7	62.9	62.3	61.1	62.9	64.0	65.4	65.9
65~79	35.9	36.8	37.9	36.7	35.6	36.4	35.7	37.4	38.3
평균	56.3	56.9	58.3	57.8	56.9	57.9	58.2	59.4	60.0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2.2 불평등

○ 고용

- 고용 측면에서 불평등은 비임금근로자비율과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을 분석할 수 있음
-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

- 비임금근로자 유형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될 수 있다. 고용주비율은 고용주 수를 전체 취업자수, 자영업자비율은 자영업자수에서 전체 취업자수, 무급가족종사자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수에서 전체 취업자수를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함
-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등)의 비율임

< 비임금근로자비율 및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임금근로자비율		32.8	31.8	31.3	30	28.8	28.2	28.2	27.4	26.8	25.9
종사상 지위	고용주	7	6.7	6.5	6.5	6.3	6.2	6.3	6	6.1	6.1
	자영업자	19.5	19.1	18.8	17.8	17.2	16.9	16.9	16.5	16	15.4
	무급가족종사자	6.3	6	5.9	5.7	5.3	5.2	5.1	4.9	4.7	4.4
비정규직근로자비율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 비임금근로자비율은 2006년 32.8%에서 2015년 25.9%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연평균 2.59% 감소함
- 이들 비임금근로자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고용주가 6.1%, 자영업자 15.4%, 무급가족종사자 4.4%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자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59.5%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고용주의 감소폭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수에 비하면 낮음
-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2006년 35.5%에서 2015년 32.5% 연평균 0.98%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에서 1/3이 비정규직근로자임
- 소상공인은 주로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일정한 매출이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 높은 것은 소상공인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어서 크게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금

- 임금에서 불평등은 임금격차를 분석할 수 있음
- 임금고용 측면에서 불평등은 비임금근로자비율과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을 분석할 수 있음
- 임금10분위 배율은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임
- 근로유형별 임금격차는 해당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임금액을 정규직의 평균 월임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계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함

< 10분위 배율, 근로유형별임금차 및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10분위배율		5.13	4.99	4.93	4.72	4.77	4.8	4.63	4.7	4.79	
근로유형별	파견/용역근로자		56.4	57	57.4	57.2	58.3	57.3	60	55.9	56.8
	단시간근로자		30.4	29.9	29.3	28.6	28.4	27.7	27.6	25.6	26.7
	기간제근로자		70.3	69.7	68.7	69.4	70.9	69.2	74	71.8	71.7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59.9	58.4	55.4	57.6	54.8	52.9	53.2	52.9	52.5	54.1

- 임금10분위배율은 2006년 5.13배에서 2014년 4.79배로 연평균으로 - 0.85%감소하였다. 2016년 기점으로 가장 낮은 4.63배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근로유형별 임금차는 2015년 기준 단시간근로가 정규직 대비 26.7%로 상당히 낮으며, 파견/용역근로자 56.8%, 기간제근로자 71.1%로 정규직 대비 30%정도 적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2006년 59.9%에서 2015년 54.1%로 연평균 1.13% 감소하는 등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

소공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분배(지니계수)

-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많이 측정한다.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함
-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합에서 공적 비소비지출을 뺀 것을 말함

< (지니계수)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분가능소득수준 (세후)-전체가구	0.306	0.312	0.314	0.314	0.31	0.311	0.307	0.302	0.302	0.295

- 2006년 0.306에서 2015년 0.295로 연평균 0.41% 감소하면서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처음으로 전년보다 0.3으로 떨어졌다.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 OECD에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 및 방법으로 작성한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이하 수준임

2.2.3 교육

○ 교육효과

- 교육효과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와 연계하여 취업률을 산출하였음
- 대학졸업자취업률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를 의미하며,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와

,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 교육 후 대학졸업자 취업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학졸업자취업률	55	58.6	59.5	59.3	58.6

- 고등교육 후 취업률은 2010년 55%에서 2014년 58.6%로 연평균 1.6%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실업률의 통계에서 4주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졸업자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일정한 시점이 흐른 후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2.4 관광

○ 방한 외래관광

-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로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입국통계를 기초로 사용하며, 관광수입은 한국관광공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함
- 동 지표는 관광산업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방한 외래관광객 유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래관광객 (천명)	6,155	6,448	6,891	7,818	8,798	9,765	11,140	12,176	14,202	13,232
전년대비 증가율 (%)	2.2	4.8	6.9	13.4	12.5	11.3	13.7	9.3	16.6	-6.8

<관광수입 및 1인당 평균 소비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관광수입 (백만 US\$)	5,697	6,071	9,696	9,767	10,291	12,347	13,357	14,525	17,112	15,177
성장률 (%)	-1.7	6.6	59.7	0.7	5.4	20.0	8.2	8.7	21.9	-14.3
1인당 평균소비액 (US\$)	926	942	1,407	1,249	1,170	1,261	1,199	1,193	1,247	1,147

- 외래관광객은 한류열풍 등으로 인해 2006년 이래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함
- 관광수입과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 역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들어 감소하였음
- 최근 국내 내수경기 악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전 국가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형 면세점에 비해 열악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우 행사의 수혜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음

2.2.5 사회/문화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

- 사회/문화 부문의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문화 부문의 기회와 위기 요인>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사회/ 문화	인구통계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통계에서는 국내 거주인구만 분석하였으나, 외국관광객의 증가로 수요 증가의 가능성은 있음 ⁶⁾	인구성장률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비 감소 및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쟁 심화
	불평등	고임금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의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소상공인이 정규기업화 되어 가고 있음	소상공인의 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용역,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낮아서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상화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에 어려움
	교육	교육효과	대학졸업자취업률의 증가는 일정기간 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상공인에 취업한 후 임금격차로 인하여 이직가능성이 높음
	관광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외래 관광수입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름	대형 면세점에 비해 열악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소외 가능성

6) 관광객의 변화추이는 거시환경 분석에서 현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가 필요함

2.3 기술(Technological) 부문

기술 부문의 주요 항목

- 기술 부문은 2개의 주요 영역인 IT 발전과 연구개발활동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IT 발전은 IT산업 생산비율, 인터넷이용률 2개 항목으로 구성됨
-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투자비율 1개 항목으로 구성됨

2.3.1 IT 발전

○ IT산업 생산

- IT산업 생산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IT산업(IT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 생산비율을 계산하였음

<GDP IT 산업 생산 및 IT산업 유형별 생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대비 IT산업 생산비율		28.4	27.7	28.7	29.4	31.6	30.7	30.8	30.9	30.3
IT산업 총생산(천억원)		2,745.2	2,890.4	3,169.9	3,385.6	4,000.9	4,097.0	4,237.4	4,410.2	4,499.3
IT산업 유형별 총생산 (천억원)	통신서비스	386.6	405.1	426.6	436	436.8	438.8	431	443.6	451.2
	방송서비스	90	97.5	92.9	95.2	107.4	119.8	132.4	138.2	141.8
	ICT기기	1,733.5	1,829.5	2,015.2	2,219.7	2,729.7	2,736.7	2,712.8	2,798.4	2,825.8
	S/W	210.6	221.3	261.7	260.1	272.3	295.2	322.4	354.9	375.2
	IT융합서비스 및 기기			373.5	374.6	454.8	506.5	541.5	575.4	597

- IT산업의 총생산은 2006년 2,745.2억원에서 2014년 4,499.3억원으로 연평균 6.37% 증가하였다. GDP대비 IT산업의 생산비율은 28.4%에서 30.3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10년 3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IT 유형별 총생산은 ICT기기가 전체 62.85%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성장을 측면에서는 ICT융합서비스 및 기기가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이 S/W의 7.49% 임
- IT산업의 총생산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여전히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통적인 ICT기기 생산의 역할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IT 융합서비스를 위한 소상공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 이용률

- 인터넷 이용률은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하여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구는 3세 이상 인구임⁷⁾
- 인터넷 이용률은 사회/문화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사용시간이 아닌 이용자 분석의 의미는 기술개발과 보다 연관됨

< 이용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터넷이용률	74.1	75.5	76.5	77.2	77.8	78	78.4	82.1	83.6	85.1

- 인터넷이용률이 2006년 74.1%에서 2015년 85.1%로 연평균 1.55% 증가하였다. 3세 이상 인구 중에서 85.5%가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확대와 맞물려서 2013년부터 80% 이상 유지함
- 인터넷이용자의 증가는 소상공인에게 IT를 이용한 창업 또는 서비스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2.3.2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투자비율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조사한 연구개발활

7) 과거 인터넷 이용자 정의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이며, 2006년부터 3세 이상으로 확대됨

활용하였음

-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당해연도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연구개발비의 비중임
- 부문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해당 부문별 연구개발지출액을 당해연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함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구개발투자비율		2.83	3	3.12	3.29	3.47	3.74	4.03	4.15	4.29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업	2.19	2.29	2.35	2.45	2.59	2.87	3.14	3.26	3.36
	정부	0.36	0.39	0.42	0.48	0.5	0.5	0.5	0.51	0.55
	고등교육	0.28	0.32	0.35	0.37	0.38	0.38	0.38	0.38	0.39

-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006년 2.83%에서 2014년 4.29%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성장율 5.34%임
-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은 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와 고등교육부문도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증가하는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국내 소상공인에도 기술혁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3.3 기술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

- 기술 부문의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부문의 기회와 위기 요인 >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기술	IT 발전	IT산업 생산비율 인터넷이용률	IT융합서비스 및 기기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인터넷이용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기회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전통적인 IT기기의 생산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소상공인의 역할변화가 필요함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투자비율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으로 인하여 혁신활동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될 수 있을 기대됨	없음

2.4 정치/제도 부문

정치/제도 부문의 주요 항목

- 정치/제도 부문은 2개의 주요 영역인 재정과 신뢰와투명성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정은 정부지출 1개 항목으로 구성됨
- 신뢰와투명성은 기관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2개 항목으로 구성됨

2.4.1 재정

○ 정부지출

-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공기업은 제외한다. 정부지출의 기준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기준임
- 정부지출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함

< 세부항목별 지출 비중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지출(조원)		252.6	258	289.9	334.6	322	337.6	356.6	379.7	384.7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6.1	24.7	26.2	29.1	25.4	25.3	25.9	26.6	25.9
정부 지출 구성 (%)	일반행정	16.6	17.6	19.9	18.1	17.6	17.1	17.2	17.1	
	국방	8	7.9	7.8	7.5	7.7	7.6	7.5	7.8	
	치안	4	4.2	3.9	3.6	3.7	3.6	3.8	4	
	경제	24.3	20.2	19.1	20.8	18.9	20.9	19.7	16.8	
	환경	2.9	3	3	3	2.5	2.4	2.4	2.4	
	주택	3.5	3.7	3.4	4.1	3.4	3	2.9	3	
	보건	10	10.5	10.1	10.3	11.9	11.4	11.4	12.1	
	문화여가	2.3	2.3	2.1	2.2	2.1	2	2	2.2	
	교육	15.1	15.5	15.7	15.5	15.8	15.4	15.9	16.3	
	사회보장	13.4	15.2	15.2	14.8	16.4	16.5	17.3	18.4	

- 2006년 252.6조원에서 2014년 38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성장율은 5.4%임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26% 내외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GDP대비 지출 비율이 29.1%로 일시적으로 증가함
- 정부지출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분야는 연평균 4.63%의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 2.76%, 교육 1.1%로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지출 항목에서 경제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사회보장, 보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보건의료와 교육, 사회보장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사업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2.4.2 신뢰와 투명성

기관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 기관신뢰도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체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 각 기관별로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 응답을 합한 비율임
-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지수로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음을 의미함

< 부패인식지수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관신뢰도	69.1	67.9	65.9	67.2	66.9	67.0	64.2	67.9		
부패인식지수	5.1	5.1	5.6	5.5	5.4	5.4	5.6	5.5	5.5	5.6

- 기관신뢰도는 2006년 69.1%에서 2012년 64.2%로 가장 낮음.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감소한 형태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타 기관에서 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신뢰도는 2013년 59.7점, 국회 31점 등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음
- 부패인식지수는 2006년 5.1점에서 2015년 5.6점으로 조금 향상되었다. 세계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163개 조사대상국 기준 42위, 2015년 168개 조사대상국 기준으로 37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고 있음⁸⁾
- 기관신뢰도 중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서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펼쳐서 관련 종사자에게 정책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8) 국제투명성기구(TI, www.transparency.org)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개선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보다 투명한 경영과 공정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일부 업종에서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2.4.3 정치/제도 부문에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

- 정치/제도 부문의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제도 부문의 기회와 위기 요인>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정치/제도	재정	정부지출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지출 증가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의 감소의미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신뢰와투명성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의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공정경쟁과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관신뢰도의 하락으로 정책수립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 및

< 부문별 소상공인 기회와 위기 요인 >

구분	주요 영역	측정 항목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경제	국가	국내 총생산 투자 무역의존도	정부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해외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의 활성화가 가능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로 가계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듦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국외 지급요소소득의 증가율이 국외 수취요소소득보다 낮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저성장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	산업구조 생산 고용 경기동향	3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음으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청년 실업의 증가와 장년층의 고용 증가의 의미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소상공인의 사업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폐업하는 소상공인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장년층의 취업률 증가의 의미는 소상공인의 무분별한 창업증가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조선과 철강산업 등의 불황과 더불어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의 체감지수와 전망지수가 최근 악화됨
	가계	소득 소비지출 소비자심리지수	없음	소비자심리지수 악화로 소상공인 관련 주요 소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사회/문화	인구통계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통계에서는 국내 거주인구만 분석하였으나, 외국관광객의 증가로 수요 증가의 가능성은 있음 ⁹⁾	인구성장률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비 감소 및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쟁 심화
	불평등	고용 임금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의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소상공인이 정규기업화 되어 가고 있음	소상공인의 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용역,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낮아서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상화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교육	교육효과	대학졸업자취업률의 증가는 일정기간 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상공인에 취업한 후 임금격차로 인하여 이직가능성이 높음
	관광	외래관광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외래 관광수입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름	없음
기술	IT 발전	IT산업 생산 비용 인터넷이용률	IT융합서비스 및 기기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인터넷이용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기회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전통적인 IT기기의 생산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소상공인의 역할변화가 필요함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투자 비용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으로 인하여 혁신활동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될 수 있을 기대됨	없음
정치/제도	재정	정부지출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지출 증가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의 감소의 의미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신뢰와 투명성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의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공정경쟁과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관신뢰도의 하락으로 정책수립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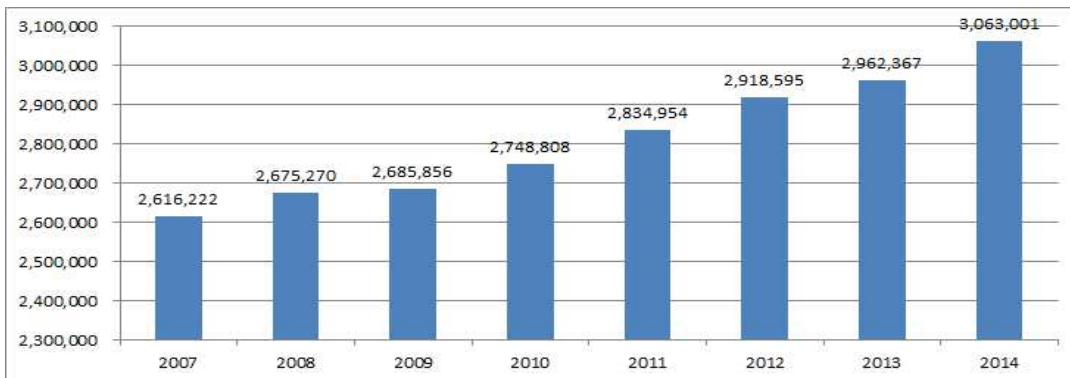
9) 관광객의 변화추이는 거시환경 분석에서 현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가 필요함

3. 산업특성에 기초한 소상공인 강점과 약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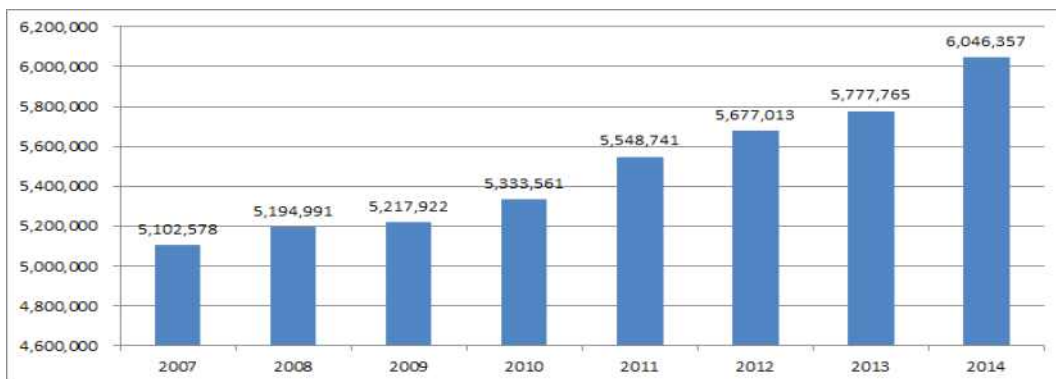
3.1 소상공인의 강점(Strength)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86%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38%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07년 2,616,222개에서 2014년 3,063,001개로 연평균 1.92%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2007년 5,102,578명에서 2014년 6,046,357명으로 2.45% 증가함
 - 연평균성장률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체 산업 대비 다소 낮으나, 2014년 기준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비중은 86.4%, 종사자수 비중은 37.9%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사업체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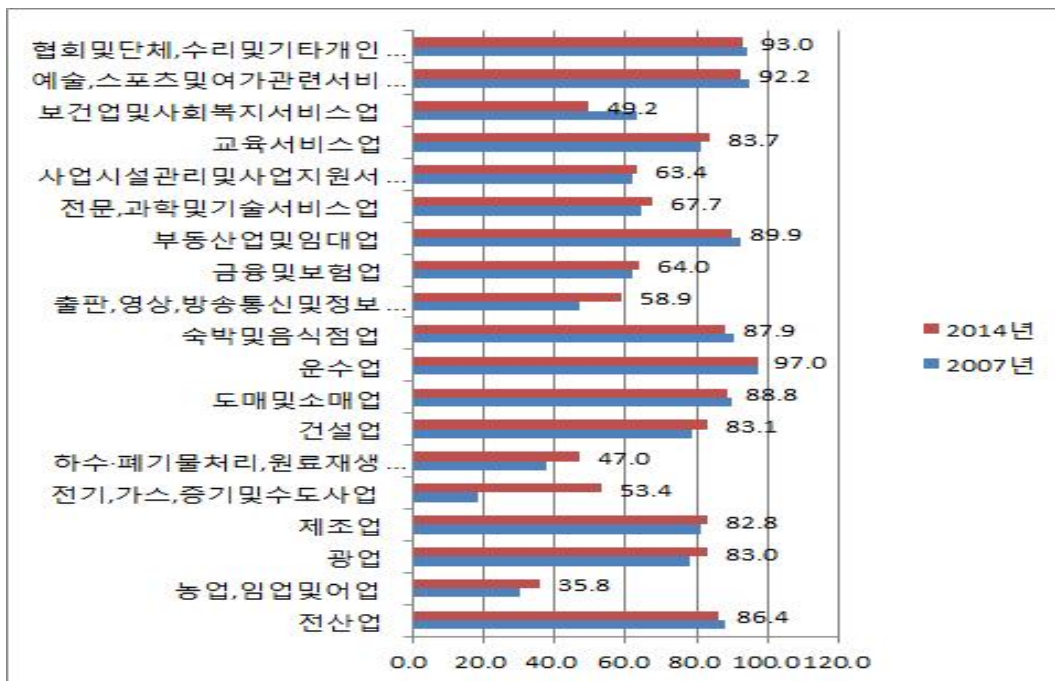
<소상공인 종사자수 추이>



- (특정 업종 분야 절대적인 역할 수행)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소상공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4 기준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으로 운수업(97.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2.2%), 부동산업 및 임대업(89.9%), 도매 및 소매업(88.8%), 숙박 및 음식점업(87.9%)임
- 동 업종은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절대적인 숫자 뿐 아니라 산업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라 할 수 있음

<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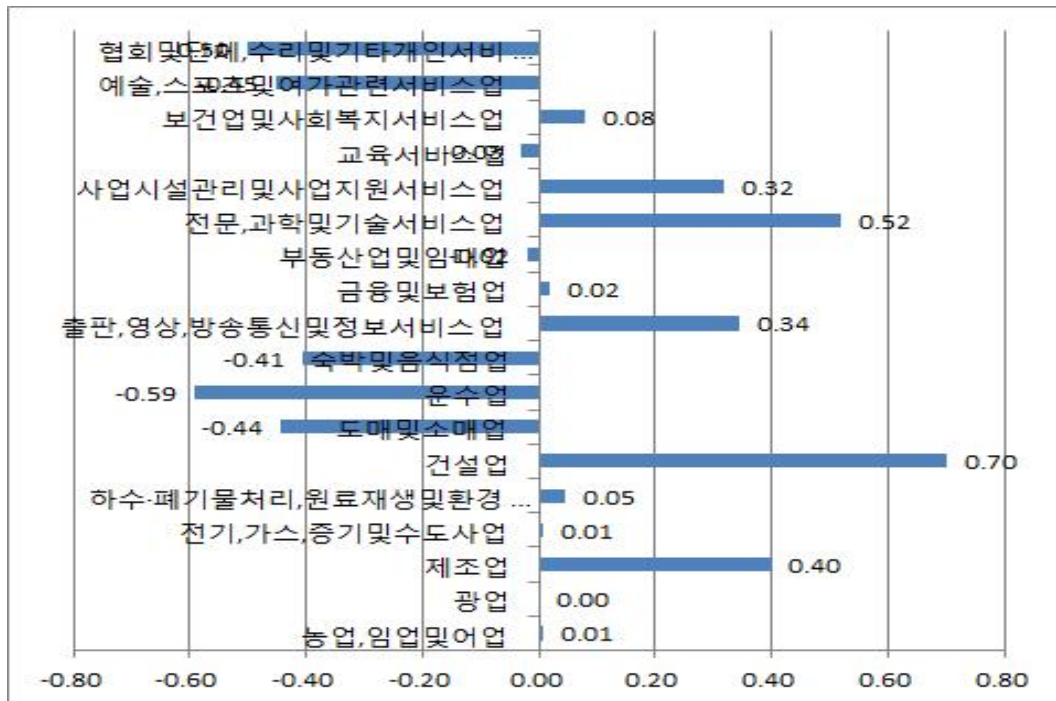


- (업종분야 합리적 재편 가능) 소상공인은 산업구조와 노사 관계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환경변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며 사회의 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 재편할 수 있음

- 2007 대비 2014년 소상공인의 업종별 비중의 변화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건설업의 증가 폭이 0.7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0.42% 증가한 바,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한 건설업 증가와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확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됨

< 소상공인 사업체수 분포 변화: 2007~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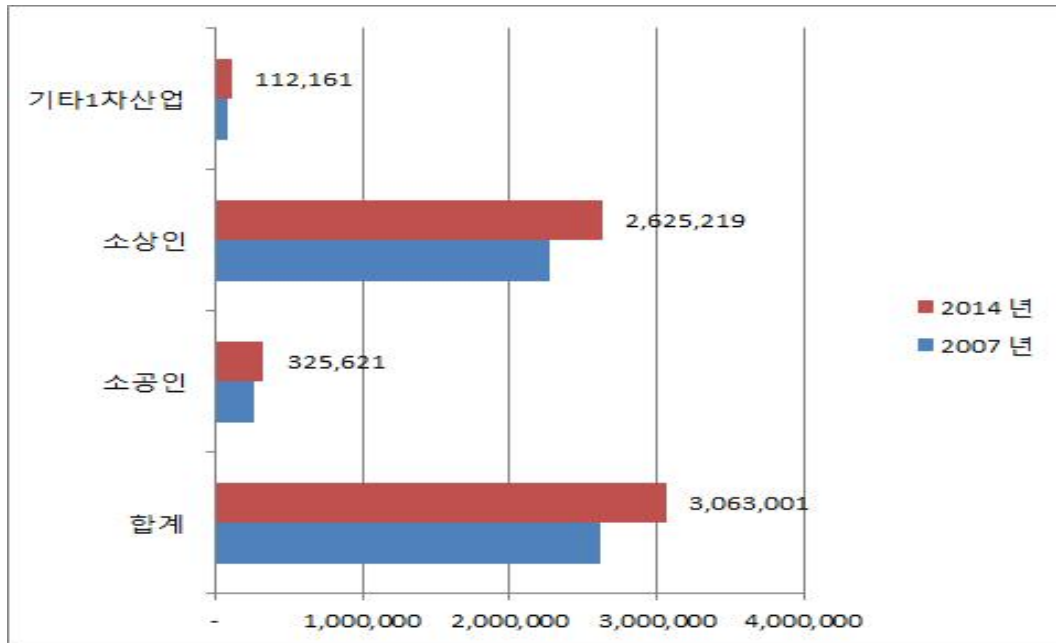
: %



- (소공인의 역할 증대) 소상공인 대비 소공인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측면에서 2007년 대비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소상공인은 크게 소공인과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수 측면에서 소공인 10.63%, 소상공인 85.71%, 기타 3.22%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수 측면에서 소공인 16.97%, 소상공인 77.07%, 기타 5.97%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바,
- 비록 소상공인에 비해 소공인의 절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최근 들어 소공인 종사자 수가 소상공인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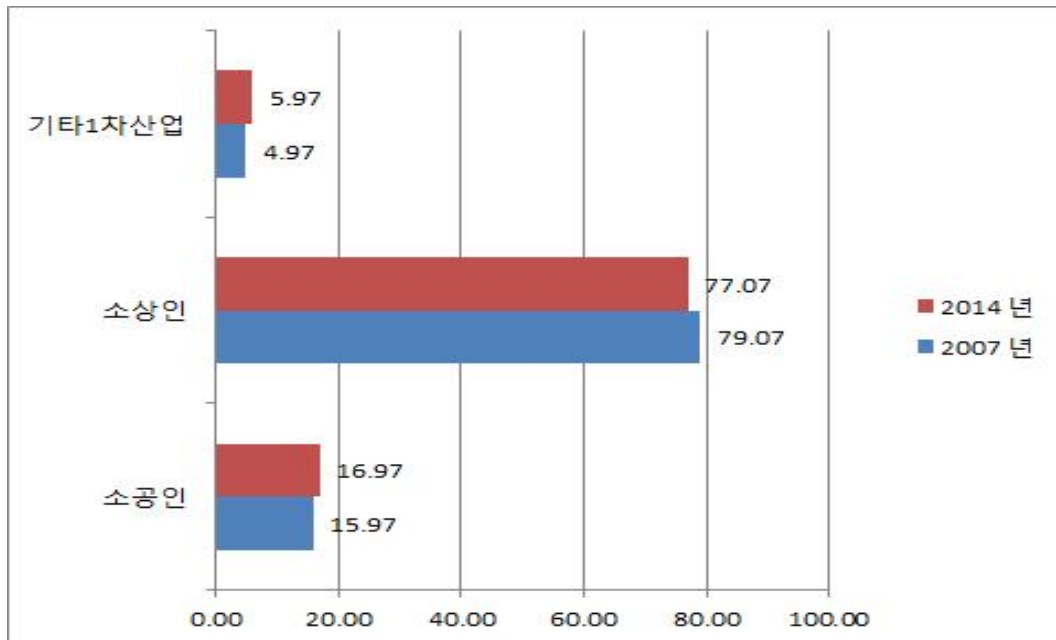
< 유형별 업체수 >

: 개



<소상공인 유형별 종사자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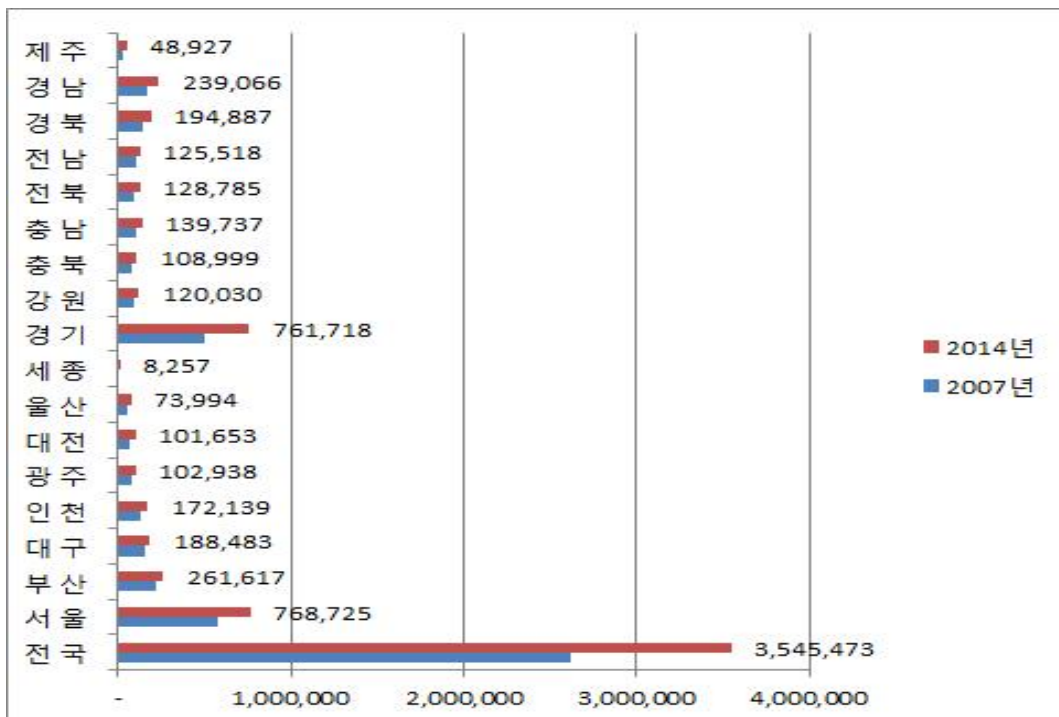


3.2 소상공인의 약점(Weakness)

- (지역별 편중 심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 모두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수도권과 대도시 등 지역별로 편중된 소상공인 분포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업체 전체기준 소상공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8.21%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8.06%, 부산 6.44%, 경남 5.93%로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약 36%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음
 - 반면 제주의 소상공인 비율은 1.2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시화나 공업화가 잘 진행된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하지만, 도시가 작거나 대기업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이 드문 실정임
 - 이러한 지역별 소상공인 편중현상은 비단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문제로서, 소도시와 지방의 SOC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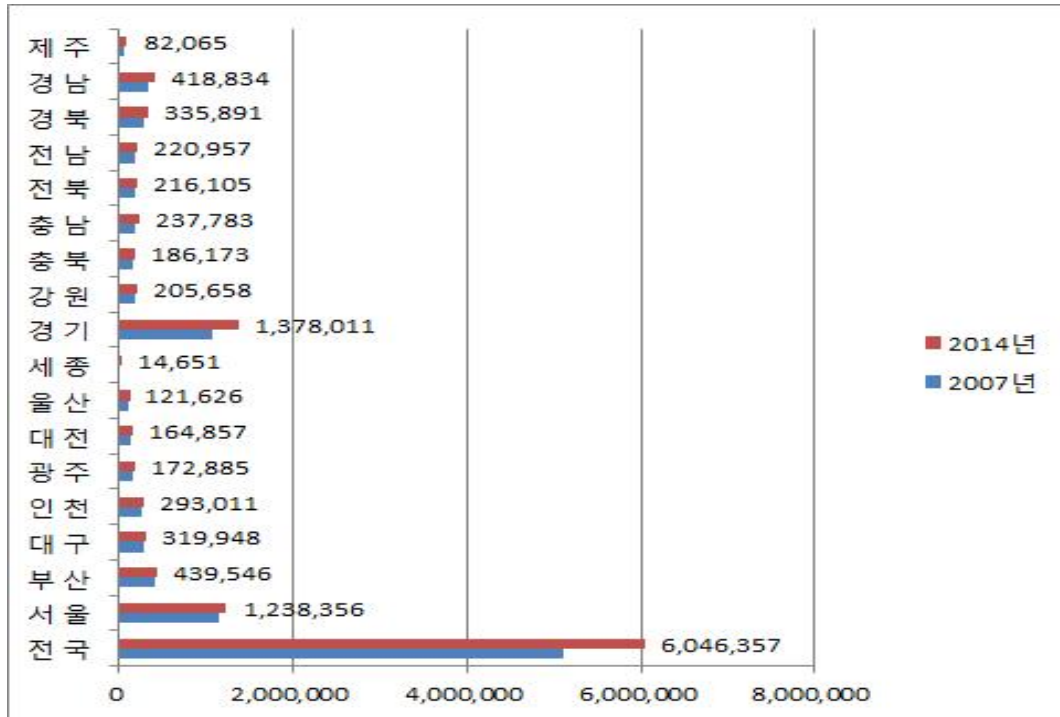
< 소상공인 사업체수 >

: 개



< 소상공인 종사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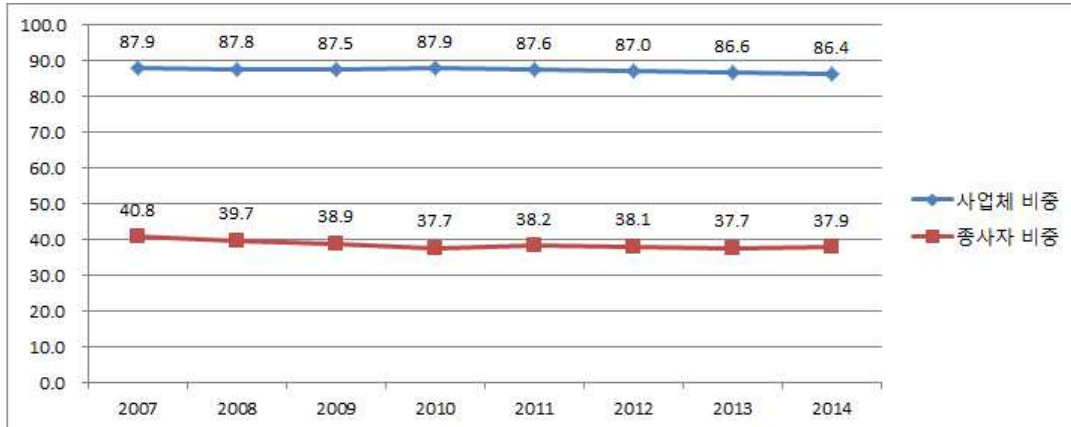
: 명



- (인적, 물적 영세성)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분류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인력과 자금 등 소상공인의 상대적 열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 평균 종사자수는 전산업의 경우 2007년 4.24명에서 2014년 4.50명으로 8년간 0.26명이 증가하였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2007년 1.95명에서 2014년 1.97명으로 0.02명으로 소폭 증가한 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함
-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2007년 87.9%에서 2014년 86.4%으로 1.5% 소폭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07년 40.5%에서 2014년 37.9%로 2.6% 대폭 감소한 바, 전산업 대비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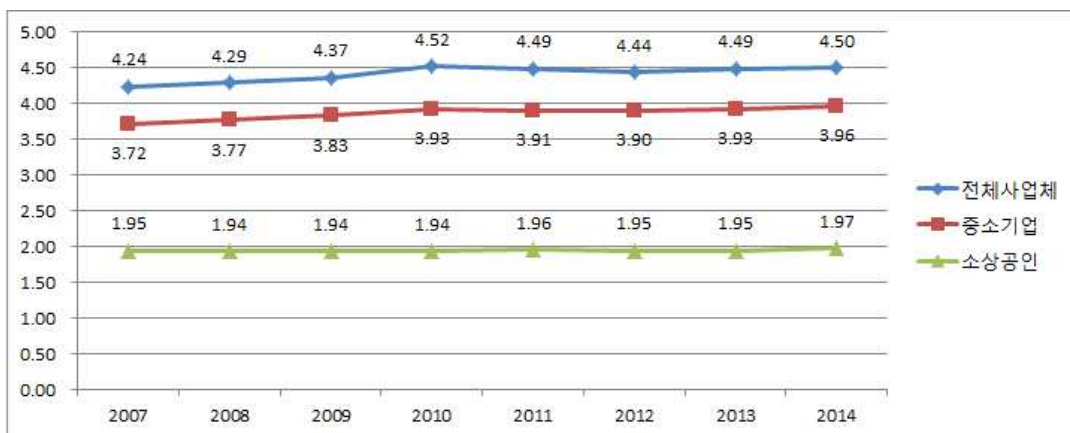
<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추이>

: %



<사업체당 종사자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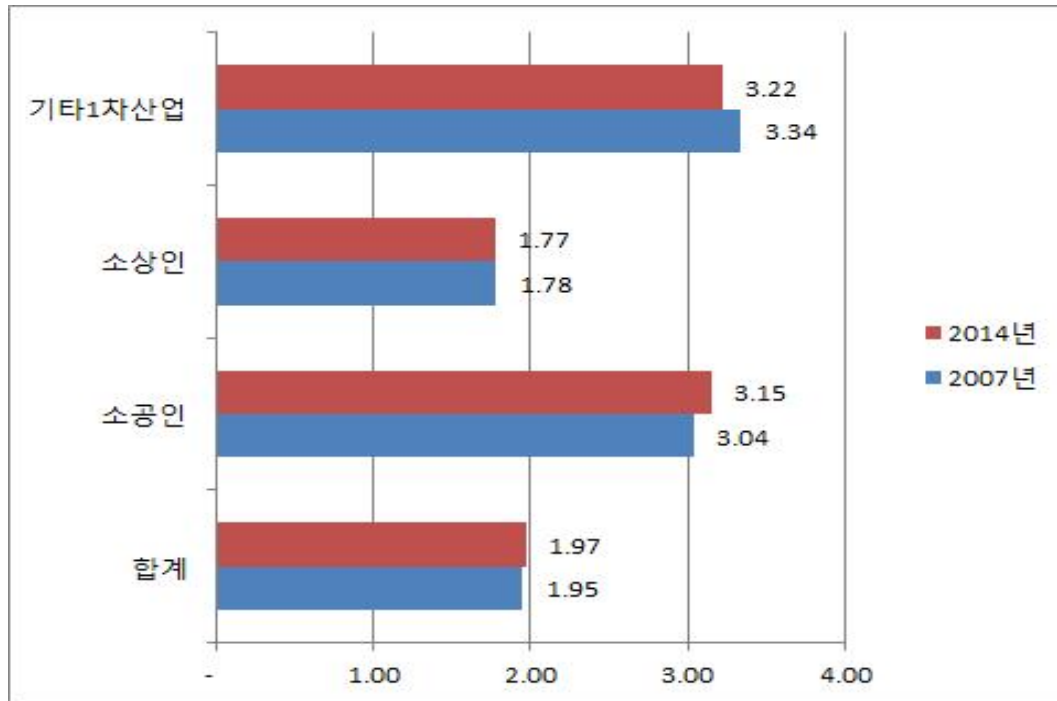
단위: 명



- (소상인 사업 환경 악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사업체수 기준 85.7%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77.1%로 역할이 미미함
 - 2014 기준으로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는 소공인 사업체당 평균 3.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1.77명에 불과한 실정인 바,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또한 2007년 대비 2014년 기간 동안의 사업체수 변화와 관련하여도 소상공인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조기은퇴에 따른 음식점 개업 증가 등으로 인한 도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영환경 악화도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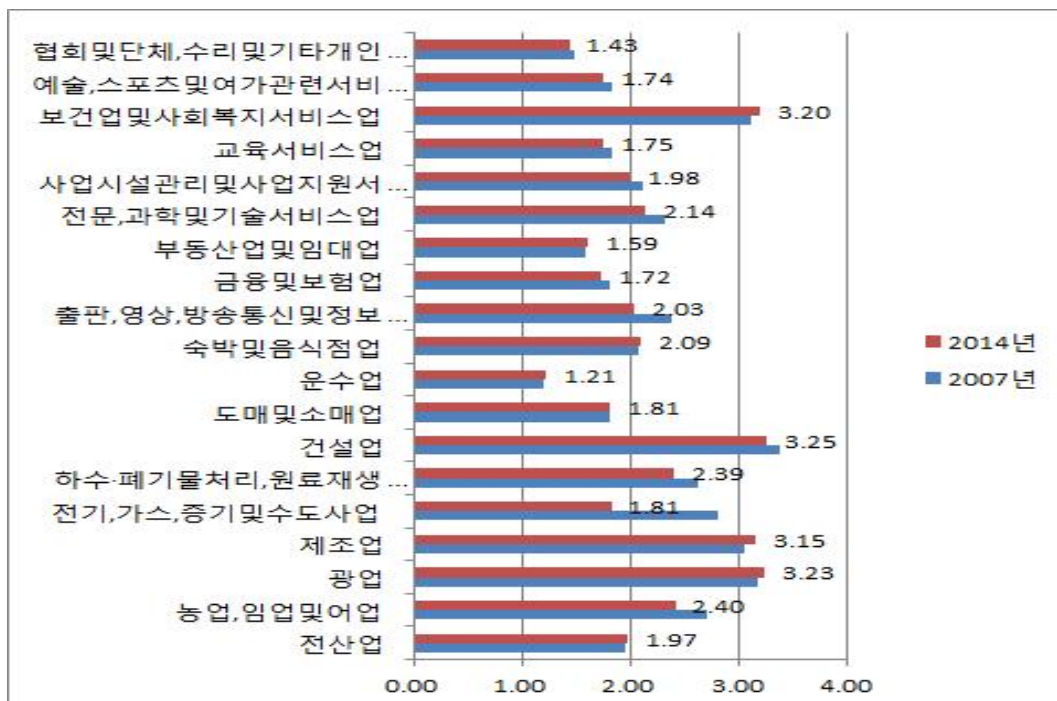
<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 >

단위: 명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

단위: 명



4. 소상공인 SWOT 분석결과와 추진 전략

□ 기회(O) : Opportunity

- (무역의존도 증가) 해외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가능함
- (우수인력 고용 확대) 청년실업 증가는 우수한 청년인력이 소상공인으로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불평등 요소 감소) 자영업자,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로 소상공인이 정규 기업화 되고 있음
- (IT 발전) IT산업의 발전 및 인터넷이용률의 증가는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증가, O2O 서비스 확대, 새로운 서비스업태 형성 가능성이 높음
- (삶의 질 향상) 정부의 재정지출이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외래 관광객 증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과 관광수입 증가는 내수경기 악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소상공인의 적극적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위기(T) : Threat

- (경제성장 둔화)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내수침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국내외적 정치경제 환경 악화로 소

상공인의 매출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체감경기) 연평균 가구소득의 증가율은 1.69%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1%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소비자의 소비심리 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실적 등 체감경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임금격차 심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파견/용역,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격차 확대에 인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 비중 상승 가능성이 높음
- (인구성장률 감소)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소비감소 및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종의 과당경쟁 우려가 있음

□ 강점(S) : Strength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86%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38%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 업종 절대적 역할 수행)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소상공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업종분야 합리적 재편) 소상공인은 산업구조와 노사 관계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환경변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며 사회의 수요변화에 따라 업종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 재편할 수 있음
- (소공인의 역할 증대) 소상공인 대비 소공인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측면에서 2007년 대비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약점(W) : Weakness

- (지역별 편중 심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 모두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수도권과 대도시 등 지역별로 편중된 소상공인 분포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적, 물적 영세성)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분류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인력과 자금 등 소상공인의 상대적 열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 (소상인 사업 환경 악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사업체수 기준 85.7%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77.1%로 역할이 미미함

< SWOT 분석 결과와 정책추진 방향 >

거시환경분석에 기초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산업특성에 기초한 강점과 약점	기회(O)	위기(T)
	○ (무역의존도 증가) ○ (우수인력 고용 확대) ○ (불평등 요소 감소) ○ (IT발전 및 삶의질 향상) ○ (외래 관광객 증가)	○ (경제성장 둔화) ○ (내수 및 체감경기 악화) ○ (임금격차 심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강점(S)	SO전략(공격전략)	ST전략(위협최소화)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 (특정 업종 절대적 역할 수행) ○ (업종분야 합리적 재편 가능) ○ (소상공인의 역할 증대)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강세 분야의 현대화 ○ 제조업 등 우수 인력 확보 노력 강화 ○ 사회수요와 환경변화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업종재편 및 특성화	○ 경기침체에 대응한 비용절감 노력 및 특성화를 통한 고객 유치 ○ 임금 상승에 대비한 비용절감 노력 및 생산성 향상 ○ 성장률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 수립
약점(W)	WO전략(약점보완)	WT전략(생존전략)
○ (지역별 편중 심화) ○ (인적, 물적 영세성) ○ (소상인 사업환경 악화)	○ 지역별, 도농간 편중 해소를 위한 SOC 등 기업환경 개선 ○ 인력 재교육, 금융지원 등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골목형시장 개선사업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 전략 마련 및 경쟁력 확보 ○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구조 개편 노력 강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 창업 유도 및 과당경쟁 방지